

8 기획-자습 공간 문제

단과대별 자습 공간 편차, 이유는

김서희 기자 smile965@khu.ac.kr  
박희원 기자 rxxtxfjxy@khu.ac.kr

# 본격적인 대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는 학습 공간의 역할을 되찾았다. 그러나 꾸준히 제기돼온 공간 부족 문제 역시 재점화되고 있다. 학습 공간인 대학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습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신문은 서울캠퍼스의 단과대학별 자습환경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

충분한 자습 공간 마련된 단과대  
학생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 모든 단과대학(단과대)의 자습 공간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단과대는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자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과대의 자습 공간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았던 곳은 경영대학(경영대)과 생활과학대학(생과대)다.

경영대는 3층에 경영대 소속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열람실을 마련해 학번과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좌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시험 기간에는 경영대 학생회 관리하에 강의실을 2~3개 대여해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열람실 외에도 지하 1층 라운지를 자습 공간으로 개조했고, 2층에도 스탠딩 책상을 배치해 자습환경을 갖췄다.

생과대는 지하 1층 열람실과 ‘KHUreative LAB’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열람실은 수업이 없을 때에 한해 24시간 개방한다. ‘KHUreative LAB’은 지난 2021년 전산실과 학생회실로 사용되던 104호를 개조한 공간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당 공간은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개별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돼 있다. ‘KHUreative LAB’을 자주 이용하는 이채영(주거환경 2022) 씨는 “단과대 내 자습실이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공강 때나 과제할 때 편리하다”며 “쾌적한 실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번 관리가 되는 것 같아 공부할 때 환경적 제약이 없어 애용하는 곳이다”고 전했다.

자습 공간 부족으로  
학생 불만 목소리 커져

반대로 일부 단과대는 충분한 자



문과대학·경영대학·정경대학 건물 전체 면적

| 캠퍼스 | 단과대학 | 재학생 수 | 건물 전체 면적               | 1인당 건물 면적         |
|-----|------|-------|------------------------|-------------------|
| 서울  | 문과대학 | 833   | 4,450.2m <sup>2</sup>  | 5.3m <sup>2</sup> |
|     | 경영대학 | 1,435 | 23,074.6m <sup>2</sup> | 16m <sup>2</sup>  |
|     | 정경대학 | 1,729 | 6,852m <sup>2</sup>    | 3.9m <sup>2</sup> |

※ 전체 면적 수치 = 총무관리처 관리팀 제공  
※ 재학생 수 = 23학년도 대학알리미 기준(단위=명)

생활과학대학 1층에 있는 ‘KHUreative LAB’(위) 각 단과대학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여부는 소속 재학생 1인당 건물 면적과 거리가 있다. (사진=김동희 기자)

습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근 지어진 스페이스21에 위치한 간호대학(간호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해 국가고시 열람실을 운영 중이나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열람실은 없기 때문이다. 스페이스21에서 자습이 가능한 공간은 지하 2층 카페와 여학생 휴게실뿐이다. 더욱이 스페이스21은 이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다른 건물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올해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추가로 배치됐지만 여전히 두 단과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에도 테이블이 2개뿐인 탓에 빈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시험 기간에 간호대 학생들을 위해 강의실이 개방되긴 하나, 이마저도 24시간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간호대 재학생 A씨는 “공강 시간에 공부할 곳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항상 집으로 가거나

주변 카페를 이용해야 했기에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문과대학(문과대) 역시 열람실이 따로 없는 상태다. 다만 문과대는 1층 문화·세계·창조 세미나실과 동관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다. 1층 로비에는 좌석을 배치해 자습 공간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시험 기간에는 강의실 2개를 24시간 개방한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1층 로비 자습 공간은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개방돼 있는 상태로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소음에 취약하며 냉난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

동관 세미나실도 문과대 학생회의 구글 폼을 통해 예약하고, 문과대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탓에 자유로운 이용은 불가능하다. 문과대 재학생 B씨는 “대면 개강 후 단과대 내에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1층 좌석의 경우 소음 차단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편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단과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자습 공간은 학생들의 불만 요

인이 되고 있다. 단과대학 내부에서 마땅히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도서관 열람실이나 카페로 향해야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잠깐의 자습을 원하는 학생은 이마저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보통 단과대에서 도서관을 다녀오는 데 왕복 약 15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지만, 단과대 내 시설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 행정실은 ▲노후화된 건물 ▲공간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문과대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이 4,450.2㎡이며 재학생 수는 833명이다. 건물 전체 면적을 재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건물 면적은 약 5.3㎡이다. 반면 충분한 자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영대는 건물 전체 면적이 23,074.6㎡이며 재학생 수는 1,435명으로 1인당 건물 면적이 약 16㎡이다. 문과대의 1인당 강의실 면적보다 약 3배 정도 넓은 셈이다.

그러나 단지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경대학(정경대)은 건물 전체 면적 6,852㎡,

재학생 수 1,729명으로 1인당 건물 면적이 3.9㎡이다. 오히려 문과대보다 1인당 건물 면적이 약 1.4㎡ 좁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경대는 1층 열람실과 매점 옆 열람실을 개방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인당 강의실 보유 면적을 살펴봤을 때도 문과대의 공간이 마냥 좁다고 할 수는 없었다. 문과대의 강의실 보유 면적은 1,576㎡로 1인당 강의실 면적은 약 1.8㎡이다. 경영대의 경우 강의실 보유 면적은 2,958㎡이며 1인당 강의실 면적은 약 2㎡로 1인당 강의실 면적에서 문과대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게다가 정경대는 강의실 보유 면적은 2,166㎡이며 1인당 강의실 면적은 약 1.2㎡로 문과대보다 1인당 강의실 면적이 약 0.6㎡ 좁다. 문과대의 공간 활용에 아쉬움이 드는 지점이다.

학생들을 위한 자습 공간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진행돼야

단과대간 자습환경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과대 재학생 B씨는 “당장 단과대 내에 열람실을 설치할 수 없다면 1층 좌석과 로비 사이에 가벽 설치를 통해서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한 공간 분리로 냉난방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수반돼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단과대로 꼽히는 정경대는 “학생들의 니즈를 캐치해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 뒤, 관리체계를 잘 갖췄기 때문인 것 같다”며 “또한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파악해 융통성 있게 지원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실과 학생회의 협력을 통해 단과대 내 공간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공간별 이용도를 조사해 잘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자습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역시 존재한다. 해당 공간을 더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생과대 ‘KHUreative LAB’은 이러한 방안으로 개장된 대표적인 예다. 이곳은 생과대 주거환경학과 4학년 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해 리모델링됐다. 이는 학생 소통과 공간 재구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